

흥왕사[興王寺] 고려왕실의 원당, 신앙·정치·학술의 복합적 기구

1067년(문종21) ~ 미상



1 개요

흥왕사(興王寺)는 1067년(문종 21) 황해북도 개풍군 덕적산에 조성된 개경(開京)의 대표적 사찰이다. 고려 제11대 왕인 문종(文宗)이 원찰(願刹)로 창건하였고 아들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이 주석하며 교장도감(敎藏都監)을 설치하여 교장(敎藏)을 조성하였다. 규모가 2,800여 칸에 이르는 대찰(大刹)이었으나 조선시대에 폐사하였다.

2 국왕의 안녕을 비는 사찰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사회에 깊이 또 널리 퍼져 자리잡고 있었다. 고려 왕실 역시 태조(太祖) 왕건(王建)의 선조부터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다. 왕건의 증조부 보육(寶育)이 출가했다가 환속하였다거나 조부 작제건(作帝建)이 말년에 속리산 장갑사(長岬寺)로 들어가 불경을 읽으며 여생을 보냈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그 신앙을 잘 보여준다. 고려 역대의 국왕과 왕비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원찰을 건립하였다.

태조 왕건의 원찰은 봉은사(奉恩寺)로 고려의 역대 왕들이 가장 자주 행차했던 곳이다. 이어, 목종(穆宗)의 숭교사(崇敎寺), 현종(顯宗)의 현화사(玄化寺), 문종의 흥왕사, 순종(順宗)의 홍원사(弘圓寺), 숙종(肅宗)의 천수사(天壽寺), 예종(睿宗)의 안화사(安和寺) 등이 잇달아 창건되었다.

고려 국왕의 원찰이란 임금의 안녕과 국운의 발전을 기원하고 교단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큰 사찰들이다. 그 건립을 위해 대단한 정성과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절의 중요도에 따라 위숙군(圍宿軍)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다. 국왕의 원찰로 기존 사원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이 창건한다는 것은 곧 국력을 기울인 대공사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지출도 엄청난 것이었다.

이중 문종의 흥왕사는 덕수현(德水縣)의 치소를 양천(楊川)으로 옮기고 세운 것으로, 왕실 원찰 가운데서도 규모가 크고 장대하여 눈에 띄는 거찰(巨刹)이었다. 송(宋)의 사신 서경(徐兢)이 고려에 와서 개경을 둘러보고 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관련사료](#) 에도 흥왕사에 대해 도성 동남쪽 모퉁이에 있으며 그 규모가 지극히 크다고 기록하고 있다.

3 흥왕사의 창건과 운영

문종은 1055년(문종 9)에 흥왕사 건축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서(制書)를 내렸다. [관련사료](#)

옛날 제왕들이 불교를 존숭하였음은 문헌에서 볼 수 있다. 하물며 태조 이래 대대로 사찰을 창건하여 복과 경사에 바탕 삼았는데, 과인이 왕통을 잇고는 덕정(德政)을 닦지 못하여 재변(災變)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바라건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여 나라를 복되고 이롭게 하고자 하니 유사로 하여금 알맞은 땅을 택하여 절을 창건케 하라.

이에 1056년(문종 10)에 공사를 시작하여 12년 후 완공하였는데, 이 기간에 문종이 수시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뿐 아니라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창원(景昌院) 소유이던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흥왕사로 이속시키는 등 [관련사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067년(문종 21)에 절이 완공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한 특설 연등회(燃燈會)가 밤낮으로 5일 동안 설행되었다. [관련사료](#) 이때 대궐 뜰에서부터 흥왕사 정문까지 오색 비단을 감은 장대를 겹겹이 세워 장식하고 임금의 수레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 양쪽 길가에 등불을 높이 올렸는데, 밤에도 마치 대낮처럼 환하였다고 한다. 임금은 병사들의 호위에 둘러싸여 백관과 함께 향을 올리고 각종 재물을 시주하였는데 『고려사(高麗史)』는 그 행사의 성대함이 일찍이 없던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관련사료](#)

흥왕사는 완공 후에도 자씨전(慈氏殿)을 삼 층의 규모로 짓고 『화엄경(華嚴經)』을 금물로 써서 봉헌하였으며, 금 144근과 은 427근을 들여 안을 은으로 만들고 겉에 금을 입힌 금탑을 만들었다. 또 석탑도 세워 안치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흥왕사는 상주승이 1,000여 명에 이르고 크기가 2,800칸

에 이르는 대규모 사찰이었으므로, 사원 내 관리조직도 다른 사원과 다른 차이가 있었다. 원래 고려시대의 사원에는 삼강(三綱)으로 불리는 관리기구가 존재하였는데, 이 기구는 주로 절의 재정과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흥왕사와 같은 규모가 큰 왕실 원찰은 다른 사원들과 달리 세속의 고위직 관원이 겸직으로 일을 맡아 사원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흥왕사에는 북송 신종(神宗)이 보낸 협저불상(夾紵佛像)과 철종(哲宗)이 보낸 장경(藏經)이 보관되어 있었다. 때문에 송의 사신 서긍이 고려를 방문했을 때 흥왕사를 다녀가고 기록을 남기는 등 송과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절이었다.

흥왕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창 후 한동안 주지 임명이 없다가 선종(宣宗) 대에 들어 의천(義天)이 초대 주지를 맡게 되었다. 의천은 바로 문종의 넷째 아들로 어려서 출가하여 훗날 국사(國師)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을 가리킨다. [관련사료](#) 이후 대대로 숙종의 아들 징엄(澄儼) [관련사료](#), 인종(仁宗)의 아들 충희(冲曦) [관련사료](#) 등 왕자 출신 승(僧)이 연달아 흥왕사의 주지를 역임하여 절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4 왕의 이궁(離宮)으로서의 흥왕사

개성에 남아있는 흥왕사 주변 터를 보면 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 절 주변으로 성을 쌓았음을 볼 수 있다. 흥왕사의 성은 1070년(문종 24)에 축성하였으며 길이는 약 4km에 이르고 동서남북에 각각 성문터가 확인된다. 흥왕사에 이러한 성을 쌓은 것은 이 절이 처음부터 궁궐 남쪽의 이궁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흥왕사는 개경을 드나드는 관문인 나성(羅城) 밖 4교 중 하나에 위치하여 교통과 국방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흥왕사와 같이 황성(皇城) 근처에 위치한 절에서는 연등회나 팔관회(八關會), 제석도량(帝釋道場) 등과 같은 국가적 불교 행사가 거행되었고 가뭄이나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이를 물리쳐 극복하기 위한 각종 불사가 개최되는 장소가 되었다. 고려의 왕들은 위와 같은 여러 행사나 재의(齋儀) 때문에 자주 절에 행차하였는데, 당일로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며칠씩 사찰에 머물거나, 병이 났을 때 요양 혹은 피병(避病)을 위해 찾아가기도 하였다. 1174년(명종 4)에 별도로 개경의 이궁이 지어지기 전까지 흥왕사와 같이 4교 지역에 위치한 절은 임금이 외방으로 행차를 가거나 각종 재의, 연회, 사냥 등으로 행차할 때 머무는 이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명종(明宗)이 흥왕사를 중심으로 한 화엄종(華嚴宗) 세력을 배경으로 최충헌(崔忠獻) 정권과 대립하거나, 고종(高宗) 대에 흥왕사 승도가 거란병의 침입을 계기로 종군했다가 최충헌을 제거하고자 시도한 사례를 보면 흥왕사가 정치적으로 왕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흥왕사는 고려 후기에 공민왕(恭愍王)이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을 피하여 경상도 안동까지 피난 갔다가 개경으로 환도할 때,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궁이 재건될 때까지 머무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때 공민왕의 측근이었던 김용(金壙)이 공민왕을 배반하고 시해를 모의하였다가 실패하여 조정이 발각 뒤집힌 ‘흥왕사의 난’ [관련사료](#) 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5 교장(敎藏)의 간행처

문종의 원찰인 흥왕사는 문종의 아들 의천이 초대 주지가 되었는데, 그는 몇 년을 빼고 거의 평생 흥왕사 주지를 계속하였다. 의천은 1091년(선종 8) 흥왕사에 교장사(敎藏司)를 설치하기를 건의하여 허가를 받고 교장을 간행하였다. 이 교장사는 『고려사(高麗史)』에 보이는 교장도감으로 보이는데, 선종 대에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둔 것은 문종의 원찰을 장엄하게 높이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평가된다.

교장은 불경에 대한 주석서를 집대성한 것이다. 10세기 전반 현종대에 불교 전적의 집대성인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 완성·간행되자 고려 불교계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불경에 대한 역대 주석서들까지 모을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의천은 송으로 유학을 떠나 중국 및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간행된 중요한 불교 주석서들을 수집하여 고려로 가지고 왔다. 이를 정리하여 목판으로 새긴 것이 이른바 속장경(續藏經)으로도 불리는 ‘교장’이다. 교장의 조성은 오로지 고려만이 이룩한 업적으로, 이후 송과 거란, 일본 등지로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흥왕사 홍교원(弘敎院)에는 의학(義學)으로 불리우는 학생들이 모여 교장 출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흥왕사에 소속되어 교장도감이 설치된 홍교원은 일반적인 지방 사원 보다 더 높은 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교장 간행사업은 흥왕사 홍교원을 중심으로 화엄종 계통 사원의 의학, 주지 등이 교정에 참여하고 세속 관료들이 서자(書者)로 참여하였다. 초조대장경의 증보가 문종에서 선종 대에 이루어졌음을 생각한다면 이 시기 교장의 간행을 주도한 흥왕사의 교단 내 입지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몽골군의 방화와 소실

고려 중기까지 문종 원찰로서의 위상과 개경 근교 대표적 거찰의 역할을 수행하던 흥왕사는 몽골의 침입으로 전소되었다. 이때 흥왕사가 소실되면서 흥왕사에 보관되던 의천의 교장도 모두 불타버려 전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중창하였으나 이전과 같은 모습을 찾지 못하다가 충숙왕(忠肅王) 대에 들어와 화엄종 고승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복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조선이 개창되면서 고려 왕실의 비호 아래 발전하던 흥왕사는 점차 사세를 잃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흥왕사가 있던 자리에는 너른 절터와 성의 일부만 남아있을 뿐 관련 유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흥왕사와 직접 관련된 유물로 드물게 국보 제214호로 지정된 흥왕사명 청동은입사 향완(興王寺銘靑銅銀入絲香垸)이 전할 뿐이다.